

제65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제66차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



의장
조남영 목사
총회장

교단 제65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목) 오후 1시 총회본부 대성전에서 열려 66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각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회부를 은혜기운에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사 회로 시작되어 경기지방회장 정광호 목사의 대표기도,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창 1:3-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오늘의 혼란스런 세태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 시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나라의 정래와 교회의 유익 을 생각하여,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분 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한 국가안보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복음전파를 위해 단대하게 행동하고 처 신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교단 정책위원장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순서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의장 조남영 목사의 인도로 열린 2부 회의는 서 기 홍현철 목사의 회원접명 후 의장의 개회선언, 홍현철 목사의 전 회의록 낭독, 보고사항으로 이어 졌다. 총무 최형택 목사의 총무보고사항으로 부흥사회 세미나, 정책위원회세미나, 2016년 목사고시 결과와



설교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폐회기도
박영찬 목사
중경총회장



축도
이용주 목사
중경총회장



사회
최형택 목사
총무



대표기도
정광호 목사
경기지방회장

선 거관리 위원 회 모임, 2016학 년도 총회신학 교, 목회대학원 개강예배, 사이 버 신학원 구원 개강 등의 내용 을 보고한 후 회 계 보고사항으 로 교단 재무 조원제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안재홍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다. 이어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 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 경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휴직 청원, 교역자소



임원배석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롬 8:16~18)

될 수 있으면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 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실은 고난이 모두 부익하고 해 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전적으로 혐오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한편 고난 을 유익 되게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 난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풍성한 지 식과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겪게 되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닌 특별한 고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고난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고난 이 없고 영원히 기쁨과 안식만 있는 처소로 인도하 기 위해서입니다. 실로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 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고 난입니다.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체 포되어 대제사장의 뜰과 로마 총독의 관청에서 고난 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후 군병 들에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남겨주었습니 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짐 땀뿜과 희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 라가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에 십 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형언치 어려 운 수치와 고통의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 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진실한 의미 를 알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가 됩니다. 그리고 정자 고난의 그림자조차 없고 기쁨과 안식만이 있는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 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럽게 여기며 받아야 할 고난 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 하는 고난입니다.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소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 해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가 되면 기록 교는 유익무익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 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 증거는 그리 스도인에게 주어진 주님의 자상명령이기 때문에, 또 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령하고 복음 전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열심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하며 순교할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부끄 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셋째, 주의 일에 힘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 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상생활이 변화되어 예배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생활이 그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열심을 내어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지나치게 믿는다는 비난을 받으며 사회생활에서 냉대도 받습니다. 그 러나 주의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 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 면 세속적인 일에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전에 즐기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취미와 오락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같이 세상 사람들 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 한 고난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하여 성경대로 이해하고 믿으며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가를 결정하고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 행하는 것이 성공적 경영의 원칙입니다. 이는 모든 일의 경영에 다 적용됩 니다. 국가가 번영하고 발전하려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온 국 민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 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는 국방 과 안보입니다. 어느 나라든 국방과 안보를 소홀히 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방과 안보를 해치는 사상과 이념을 가진 조직체와 개인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은 실로 누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 로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관점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며 행동해 야 합니다. 북한의 강경은 정권은 적화통일을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 발하고 생화학 무기를 양산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배격하는 종북화 파가 각계각층에 침투하고 세력을 확장하여 국가체제를 바꾸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려면 위기의식에 둔감하고 안보불감증에 걸린 국민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근래 에 애국 국민들이 분발하고 많은 분들이 각양각색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 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다행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앞장 서서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나서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 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삼십여 일은 더할 수 없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교회의 안전 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금식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과 도움을 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2017년 4월 6일

임원명단		
△고문 : 조용목 목사(예하성)	△대표회장 : 정부용 목사(예하성)	
△고문 : 최복기 목사(기침)	△사무총장 : 김용도 목사(기침)	
△고문 : 최한용 목사(예장총회)	△서기 :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고문 : 배기은 목사(예장호연)	△부서기 : 김동민 목사(예장동신)	
△고문 : 배진기 목사(예하성)	△회계 : 이상용 목사(예장합동진리)	
△고문 :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부회계 : 정명화 목사(예장합동보수진리)	
△고문 : 김상용 목사(예하성)	△감사 : 박필준 목사(예장합동진리)	
△고문 : 최상열 목사(예장동신)	△감사 : 이상익 목사	(예장연합오순절교회총회)
△고문 : 윤태남 목사(기침)		
△고문 : 임종달 목사(예하성)		
△고문 : 이영주 목사(예하성)		
△이사장 : 공병철 목사(예장합동진리)		

가 입 교 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 유관재 목사, 총무 : 조원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 조남영 목사, 총무 : 최형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 이영만 목사, 총무 :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연)총회
총회장 : 신용철 목사, 총무 : 도용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한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 김영길 목사, 총무 : 정덕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 김병근 목사, 총무 : 최철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 이한영 목사, 총무 : 구상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 이 위 목사, 총무 :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 강문중 목사, 총무 :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 최상열 목사, 총무 :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한동성목총회
총회장 : 황상호 목사, 총무 :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영신총회
총회장 : 김혜순 목사, 총무 : 조영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 김명희 목사, 총무 : 천접수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 김지현 목사, 총무 :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 박경숙 목사, 총무 :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 김태진 목사, 총무 : 송계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
총회장 : 홍복두 목사, 총무 : 박영출 목사
한국 H I M 신교총회
총회장 : 홍정식 목사, 총무 : 박희종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
총회장 : 박태영 목사, 총무 :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장신)총회
총회장 : 김효종 목사, 총무 : 광명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 이성재 목사, 총무 : 김영철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kos0210@nate.com

“진정한 화평의 문화 실현될 수 있기를”

화해중재원 개원 9주년 기념 감사예배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법률적 분쟁을 자율적, 평화적, 소송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원장 박재윤)이 개원 9주년을 맞아 지난 4월 4일(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피영민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 기독교가 갈등만 하고 재판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 속에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한 가지 동기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원장 박재윤 장로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특정한 교단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써 개신교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해 왔다”면서 “설립 때부터 오늘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돌아보시고 화해중재원의 모든 사역을 섬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부이사장 이영복 장로의 기도, 부이사장 박경진 장로의 성경봉독, 기침 증경 총회장 인종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안 목사는 요 13:3-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지금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제 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불허의 사건 사고가 참 많다.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묻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건, 그 현장 속에 계신다”고 전했다.

나사렛총회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평신도사역국 신설 및 총회운영 규정안 개정

대한기독교나사렛교회(감독 김영수 목사)는 제62차 총회를 지난 3월 21일(화)과 22일(수) 양일간 팽택시 안중읍 소재 안중교회(담임 윤봉기 목사)에서 개최하고 총회 재규정 및 신설, 한국성경교회 명칭 사용의 건, 총

회본부 이전 추진위원회 결과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총회로 치러진 이번 총회에서는 ‘평신도사역국’을 신설키로 하는 한편, 총회운영 규정이 아닌 하위 규정들은 실행위원회에

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교회개혁 운영규정 제41조(개정)와 선교국 운영규정 제11조(개정), 교육국 운영규정 제41조(개정), 정보출판국 운영규정 제11조(개정) 등에 대해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감독 또는 선교국 또는 각 지방회에서 발의하여 실행위원회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로 각각 변경했다.

이울러 ‘총회본부 이전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한국나사렛교회 70주년 기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 제2조, 제5조의 ‘총회본부 이전 추진위원회’도 ‘한국나사렛교회 70주년 기념관건립 위원회’로 바꿨으며, 이에 따라 한국나사렛교회 70주년 기념관 건립위원회 구성도 결의했다.



카이캉 부흥사협의회 창립예배 드려

영혼 구원·교회 살리기 위해 총력 다짐

카이캉 부흥사협의회(대표 이윤희 목사, 이하 카부협)가 지난 3월 30일(목) 대전 유성구 유성계룡스파텔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부흥을 건원하겠다는 합찬 포부로 출범한 카부협 회원 부흥사들은 말씀과 회개기도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윤희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양만홍 목사의 대표기도, 지미숙 목사(크리스찬연합신론 발행인)의 성경봉독, 조만행 목사의 특송이 이어 합창으로 목사(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연합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함 목사는 빌 2:5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과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맡아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종이다”라며 “이 시간까지 살아서 영광스러운 목사의 사역을 하는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인이신 주님을 닮고 주님의 주권

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탐취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부흥사들이 많다. 이들은 묵화한다고 고난을 받고 교회 부흥시키느라 고생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합창예술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서울지역 장애인합창단 6팀 출전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이사장 최공열)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오는 4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합창예술제를 개최

한다.

장애인합창예술제는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며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홍보와 그 역량을 알리고,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

하기 위해 개최된다. 장애인형 구분 없이 서울지역의 장애인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제로 총 6팀이 출전한다.

장애인합창예술제 출전팀으로는 나누리합창단(성민복지관), 다문화합창단(사회복지법인 다문화), 리버엘코러스, 서울푸르나메합창단, 어울누리합창단(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푸파합창단(서울시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이다.

이날 대한민국 황제어합창단과 국장합창단 화예술학교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국장합나눔 챔버오케스트라와 하늘소리무용단의 소고춤과 비장애 아동으로 구성된 코리아 뉴아일랜드의 초청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본 예술제의 최우수 팀은 2017년 12월 1일 KBS홀에서 펼쳐질 2017년국장애인합창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세기총 제5차 정기총회 개최

황의춘 목사 대표회장 선출 등 임원개선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이하 세기총)는 제5차 정기총회를 지난 3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미국 뉴욕 퀸즈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20일 개회예배는 황의춘 목사(수석상임회장)의 사회로 최낙신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김종택 목사(부회장)의 성경봉독, 김요셉 목사(직전 대표회장)의 설교, 장석진 목사(중경대표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1일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의 인도로 회무처리가 진행되어 정관개정, 대표회장 선출, 법인 이사장 및 후원 이사장 추대, 법인이사 선임, 임원 및 상임위원장 인준, 감사와 회계보고, 사업보고 등의 안건을 다뤘다. 정관 개정에서는 후원이사장의 위치를 강화했으며, 세기총 사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국가 지부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정관에 따라 수석상임회장 황의춘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차기수석상임회장에는 정서영 목사(현 한교연 대표회장)를 선출했다.

임원선출 후 이어진 이·취임식을 원종문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모든 회원들의 축하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는 취임인사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복음 사역자들이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약된 복음적 통일성이 필요하다.”면서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 대륙 별로 TF Team을 조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는 이임인사에서 4천여 개 이상 참여하는 통일기도운동을 강조하였다.

세기총은 제5회 총회선언문을 법인이사김

대성 목사가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회무처리를 마쳤으며 정기총회후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솔터의 북한인권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중식후 고시영 목사의 인문학강의와참석한선교사들의 선교포럼 등을계속 진행하였다.

신임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는 34년 전인 1983년부터 트랜스장로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으며, UPCA(예장 국제연합총회)를 설립하고 3대 총회장을 역임했다. 또 연합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14대 미기총 회장으로 있으면서 세기총 창립을 주도하여 초대 상임회장을 역임했다.



예장합동 총회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드려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정성구 목사 명예관장으로 위촉

예장 합동총회가 지난 3월 31일(금) 총회역사관 개관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장합동 제10회 총회에서 결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합동총회는 통합, 고신 등 타 교단 역사자료관 현장방문과 워크숍, 2016년 7월 기공예배를 거쳐 총회역사관을 완공하고 개관하게 됐다.

이날 개관 감사예배에는 김선구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을 비롯해 총회 산하 기관 대

표들, 증경총회장들이 함께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김선구 총회장은 “우리 총회가 설립된 지 106년 만에 총회역사관을 개관하게 된 것은 과히 역사적 쾌거”라며 “이를 기점으로 전국에 흩어진 귀중한 사료들이 더욱 수집되고 체계가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총회장은 “교회의 초창기에는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로 고난의 길을 걸었으며, 국도의 분단으로 북한의 교회들을 잃는 아픔도 겪었고, 전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산의 고통과

순교를 당했다”고 언급하고 “이번에 개관하는 총회역사관은 개혁신앙, 순교신앙, 세계선교를 교단의 정체성으로 삼고 지나온 역사를 잘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시작으로 삼아 앞으로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날이 속히 올 것이라 기대한다. 전국 교회와 성도들은 꼭 총회역사관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선교의 현장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총회는 더욱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학으로 세계선교의 가수가 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합동총회는 “100년의 총회역사와 한국장로교 개척교회의 정체성 확립의 상징이자, 신앙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한 역사교육의 장이며, 더불어 한국교회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총회역사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 로드랜드아카데미 개소식 가져

미국 로드랜드대학 산하 세계적 인물양성에 주력

미국 로드랜드대학교(이사장 전가진 박사) 산하 한국 로드랜드아카데미(부총장 송강면 박사) 개소식이 지난 3월 25일(토) 오전 11시 여의도 월드비전 614호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 부총장인 송강면 박사는 설명회를 통해 로드랜드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인간이 가진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최고의 교육을 지향하는 로드랜드학교를 통해 큰 꿈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 박사는 “로드랜드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인가(0040862) 캘리포니아교육국(88680429) 연방미민국(LOS214F51555000)에서 인가받은 대학교로 인간의 삶의 기준인 성경을 통한 바른 가치관 형성에 목표를 두고 영성개발 및 사역자훈련을 통한 세계적인 인물 양성과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계속해서 “로드랜드대는 미국 장로회총회에서 목사안수도 받을 수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미국 상담심리치료학회(AACPT) 등의 국제자격증 취득, 미국 유수대학교와 공동학술협력을 통해 공동학위도 취득(복수학위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드랜드대는 신학대학·교육대학·대체

의학대학·선교대학·예술대학·사회과학대학·경영대학 등 총 23개 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가 가능하며 영적치유사·어린이교육교사·치유사역자 등 총 33개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18회 졸업식을 통해 2000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으며, 유학생 프로그램 SEVIS I-20이 발급된다.(문의 010-9744-9182)



좋은교사운동, ‘가정방문’ 캠페인… 복음으로 세워

교사와 학부모의 긍정적 소통에 교육청도 권장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독교사모인 ‘좋은교사운동’이 2017 가정방문 캠페인을 시작한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가정방문 캠페인은 아이들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는 기독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진행된다. 학기 초 임부로 분주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방과 후 시간을 쪼개어 진행하게 되며,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말하기 힘들어했던 각 가정의 형편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17년 동안 좋은교사운



동의 가정방문 캠페인에 참여한 기독교사들은 매해 아이들을 가슴으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한 교사는 “대담도 잘 안 하고 매사에 수동적인 아이의 가정을 방문해보니 사실은 아이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수다쟁이에 활발한

성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자연스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아이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며 교육목표 및 방향을 수정했다”고 가정방문 후기를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교의 문턱을 높게만 생각하고 자녀의 부족함이 부끄러워 교사들에게 자녀의 문제를 타놓고 이야기하기 두려워했던 부모들도 교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다수의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가정방문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여 권장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한마음교회

한마음 되어 제주복음화 헌신 다짐

제주한마음교회 교회설립 20주년 및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

담임
김건수 목사

제주지방교회(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는 지난 4월 4일(화) 오후 4시 제주시 광평동로 31-4(노형동) 소재 새성전에서 교회설립 20주년 및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고 1997년 3월 3일 교회 창립 이래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동안 러시아,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다양한 선교 활동과 방송선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를 복음화 하는데 헌신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날 예배는 김건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청원은혜교회 이재웅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 총무 안재홍 목사(교단 회계)의 성경봉독,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빌 4: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설교
조용목 목사격려사
신재영 목사기도
이재웅 목사축사
안병찬 목사성경봉독
안재홍 목사

를 통해 “우리 인생들은 모든 가치기준을 하나님 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헌신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전파를 위해 하나 되어 헌신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성도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제주한마음교회 안수집사, 권사들의 헌금축송,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안병찬 목사의 축사, 교단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의 격려사,

김건수 목사의 광고, 조용목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주한마음교회는 ‘성경을 닦아가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교회’, ‘예수 제자 삼기에 성공하는 교회’,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제주지역복음화는 물론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한마음교회 <http://제주한마음교회.net>
064)744-9182, 010)3698-5764



성숙을 위한 고통... 서로 사랑으로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는 지난 3월 30일(목) 교단 제65-5회 실행위에서 부산동지방회로 인준받은 후 지난 4월 4일(월) 은혜충만교회(담임 홍현철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영욱 목사(순복음장흥교회)의 기도,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살후 1:3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방회가 나누어지는 것이 이롭고 기쁨이 공존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더 성장하고 성숙을 위한 고통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이어서 통



성기도 후 정영진 목사(갈릴리교회)의 헌금기도, 조경호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광고, 최성진 목사(울산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러한 정기지방회에서는 신임위원을 선

출하고 회부를 처리했다. 신임위원은 회장에 홍현철 목사, 부회장 정영진 목사, 총무 조정화 목사, 회계 박영욱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모임 후에는 은혜충만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3월 28일(화) 오전 11시 경주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위원을 선출하는 한편 한 회기동안 헌신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동배 목사의 기도, 서기 신홍섭 목사의 성경봉독, 회장 이성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미 6:6-8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삶’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지방회로 이어져 각종 회부를 처리하고 신임위원을 선출했다. 이번

에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성석 목사, 부회장 권점식 목사, 총무 신홍섭 목사, 서기 성기찬 목사, 재무 윤득주 목사, 회계 황용식 목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

강원서지방회

강원서지방회(회장 최승수 목사)는 지난 3월 27일(월) 오전 11시 흥천평강교회(담임 박성윤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각종 회부처리와 함께 한 회기동안 수고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성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하자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최승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눅 10:38-42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편을 택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순절을 맞이하여 평신도 자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역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르타의 대접하는 수고를 통해서, 기독교의 황금률과 율법의 완성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생안정을 위해, ‘교단 발전을 위해’, ‘지방회와 산하교회들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임부채 목사, 김재두 목사, 서범석 목사, 윤인주 전도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회계 김중애 목사의 헌금기도 후 최승수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증경회장 권영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회부처리에 들어가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성윤 목사, 부회장 임방재 목사, 총무 김재두 목사, 서기 서범석 목사, 회계 김중애 목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회자 다짐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3월 24일(금) 서산에 있는 순복음장자교회(담임 오수경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현 임원진을 모두 유임하기로 하는 한편 각종 회부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재무 오수경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차흥식 목사의 설교와 교단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헌금기도와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차 목사는 행 1:8 말씀을 본문으로 ‘오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이시며 변호인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요. 특별히 충서지방회 목회자들은 성령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랑의



목회자들이 되자”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열린 정기지방회에서는 전년도 임원들을 그대로 유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

월 17일 청림예배를 드리는 순복음아름다운포도원교회의 청림행사를 논의하고 순복음장자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오찬을 나누면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생명의 말씀 ■



유흥열 목사
· 강원동지교회 회장
· 열린교회 담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중간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영혼사역을 하게 하였고, 그 가운데 저를 세우셔서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합력하여 오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축도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마음을 주셔서 일부분 감당하였고, 또 중간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물질로, 재능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골조를 맡았던 건축업자는 건축의 수많은 공정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 교회 내가 지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건축에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한 직분자가 마치 내가 다 지은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 그 일에 참여했을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 쓰임 받는다는 감사와 겸손으로 오히려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두번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셨는데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시라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단 4:22)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단 4:25)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부갓네살은 마치 자신이 이 큰 왕국을 이룬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였고 다니엘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

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1년 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단 4:28-31)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 속에서 자꾸 ‘내가 했다’고 속삭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졌고, 내가 잘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성장했고,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속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가지는 교만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리

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무서운 죄악된 행위입니다.

결국 이렇게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뭘 했다’고 자만하며 살다가 망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목적에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극히 작은 한 부분이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아무리 성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밀알이 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우리가 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됨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지만 결국 이 인류역사에 가장 연한 우리들을 불태우고 한 부분으로 써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

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지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전 3:6-8)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매를 맞고 수고하였으며,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 아볼로를 심어 물을 주고 가꾸고 양육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바울과 아볼로의 공로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로패를 받고 거기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즉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어 자라게 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통과 물을 준다 하여도 그 속에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한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착각하여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꾸 교만하고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살다가 영적으로 망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원래 모습인 ‘원형’을 회복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 정

CTS인터내셔널 주대준 회장 취임



사단법인 CTS인터내셔널(이사장 감경철)은 회장에 前 선린대학교 총장 주대준 장로를 선임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신임 회장 주대준 장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 후 美 NPS 정보시스템과학 석사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사이버보안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침, 나라와 민족 위한 구국기도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유관제 목사, 이하 기침)는 혼란한 정국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했다. 기침은 경기도침례교연합회(대표회장 안동찬 목사, 이하 경침연)와 함께 지난 3월 24일(금) 수원중앙교회에서 경침연 소속 목회자와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호프월드미션 선교훈련학교 개강



초교과 선교단체인 호프월드미션(HWM, 대표 김용국 목사)이 지난 4월 3일(월) 선교훈련학교를 개강했다. 오는 7월 4일까지 15주간 열릴 선교훈련학교는 평신도 직장인·선교 관심자·선교훈련 희망자·목회자·전도사·신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교학의 기초’, ‘선교와 영적전쟁’ 등 선교에 필요한 30강좌를 집중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02-742-3023)

장근석, 몽골 아동 의료비 지원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의 오랜 후원자인 배우 장근석 씨가 몽골 아동의 난소암 항암치료를 돕는다. 후원을 받게 된 나린타예 아자르갈(17세)은 종양 수술을 한차례 받았으나, 작년 11월 종양이 재발해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 몽골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치료가 불가능했으나, 장근석 씨 후원으로 국내 병원으로 초청,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학생을 외면하는 교사는 설 자리가 없다

최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교사 중 일부가 소위 ‘노조 전입자’를 이유로 학교에 무단결근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교사가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하도록 감독해야 할 일선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정당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전교조 본부가 지난달에 교육부에 요청하기를 “교사 16명을

노조 전입자로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를 교육부가 허락하지 않자, 해당 교사들이 무단결근하거나 일부 교육감이 이를 불법으로 승인하는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지난해 1월 고등법원으로부터 ‘별외 노조’로 판결된 상태라 전교조 활동을 위한 ‘전입자 특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무단결근하면 파면 등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선 학교에서 교사

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데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교사들이 학교장의 면담과 권고를 뿌리치고 ‘조직(전교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교육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학교 현장에 없는 교사가 무슨 교사의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교사들의 무분별한 행동의 뒤에는 현재 편향된 일부 교육감들의 비교육적 두둔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노조 전입자 후직을 허락하면서 ‘탄핵을 이끌어낸 쫓ult 시민혁명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 노조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학교와 교사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고 하니 너무 아이가 없다.

더군다나 교사와 교육자들을 감독해야 할 일선 교육청이 불법 묵인과 조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담하며, 교육을 통해 참사람을 만들고 미래의 지도자로 육성해야 할 목표는 저만치 멀어지는 느낌이다.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불법’의 모습을 지행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적인 투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인가?

전교조는 ‘참교육’을 목표로 한다. 그 참교육은 전교조가 정립 당시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민족, 민주, 인간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틀렸다. 전교조의 목표가 틀렸던지 아니면 그 조직원인 교사와 이를 두둔하는 일부 편향된 교육청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어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을 바른 민주 시민과 인간다운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전교조는 ‘바른 교육’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일부 교육감들의 ‘체식구 감싸기’ 식의 편법과 불법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결코 정치적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법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홈페이지 :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인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방명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화학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신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교 총장



기독교 예술, 그 지표에 대하여 ⑦

우리는 좀 더 기독교가 절대적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기독교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반문하는데 이는 삶과 진리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진리란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1=2란 절대적 진리다. 그러나 한 사람의 물에다 한 사람의 물을 더하면 반드시 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부피가 늘어날 뿐이지 둘이 아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지만, 그러한 말씀이 반드시 삶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고 하신 말씀을 필립(모음 작, 『인간의 골짜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

를 실제의 삶에 적용했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고, 다시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같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반드시 우리를 삶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살이란 바로 행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표현은 종교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기독교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기독교 예술이 현대에 이르러 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기독교라는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이란 언제나 편에 박힌 듯하고, 외톨이처럼 살고, 생각할 것도 없다고 세인들은 보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예술의 지표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표류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 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이란 바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곁에 있다고 보겠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종교적 표현이나 예술적 표현이나 모두가 우리들 삶과 관계하고 우리는 우리들 삶을 통해서 이를 다양하게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는 참된 진리에의 표현을 요구하지만 예술은 보편적 삶의 표현을 객관적으로 유추해가고 있다는 것이 종교와 예술과 표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예술이 세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리가 우리들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현대인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들 삶의 체험으로 표현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경원전 원어성서 목회상담 세미나 개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기독교발전협의회는 3월 31일 오후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성경원전 원어성서 목회상담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들어가기전에 드려진 예배는 박춘복 목사(예장개혁신교회)의 사회로 진행, 민승국 목사(예장연부흥연수원 원장)의 대표기도, 손덕목사(예장 총회장)의 성경봉독, 송복희 회장(진리선교회 회장)의 특송 후에 조성훈 목사(예장연 이사장)가 ‘생명신학과 생명있는 목회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요 11:2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획득했다.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도 사

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로서 주님을 잘 믿고 잘 전하는 이 시대 목회자가 되자”고 전했다.

이어 이영수 목사(예장합동연합총회장)의 헌경기도, 김진웅 목사(합동정신 총회장)와 진택중 목사(예장연합총회장)의 축사, (사)기발협 이사장 이종택 목사의 인사, 장관희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임화영 목사(국제기독교복음주의연합회 이사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장관희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미나는 주강사인 이종택 목사(이사장)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고, 함영민 목사(대표회장)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김임순 목사(상담원 원장)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장관희 목사(사무총장)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종택 목사는 세미나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우주외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그 한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무장을 해야 한다. 무조건 믿어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다. 진정한 성경원전을 갖고 제대로 공부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자.”고 말했다.

이종택 목사는 세미나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우주외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그 한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무장을 해야 한다. 무조건 믿어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다. 진정한 성경원전을 갖고 제대로 공부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자.”고 말했다.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 출범

전 국민 2.5%인 장기기증 등록자 10%대 목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택)는 지난 3월 28일(화)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이하 활성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부 감사예배, 2부 기초강연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활성화위원회 대표회장 이성희 목사, 상임회장 박진택 목사, 총합선교단(신장기기증인 목회자) 13명과 본부 관계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유재수 정로(본부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권오륜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의 기도, 연동교회 살롬중앙당 및 본부 전 직원의 특송 후에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가 설교했다.

위원회 대표회장에게 추대된 이성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인 만큼 많은 한국교회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며 추대소감을 전했다. 활성화위원회 상임회장 박진택 목사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교계에서 펼쳐고자 한다”며 “많은 목회자들과 한국교회가 앞장서 함께 해주리라 믿는다”는 언급했다.

전국 14개 교단의 총회장 및 대표와 각 교단의 200여 교회가 함께하는 활성화위원회의 공동회장장은 이승현 총회장(개혁신), 전명구 감독회장(기감), 여성산 총회장(기성), 권오륜 총회장(기장), 이영훈 총회장(기하성), 유관

재 총회장(기침), 김영수 감독(기신), 이종승 총회장(대신), 김철환 총회장(무태회), 임준수 총회장(복음), 이성희 총회장(통합), 김근상 의장주교(성공회), 김선규 총회장(합동), 조봉희 목사(합신) 등이 선임됐다.

한국교회 사랑의장기기증 활성화 위원회는 전 국민의 2.5%인 장기기증 등록자를 10%대로 만든다는 목표로 국내 장기기증 인식개선 운동과 함께 한국교회가 지원하는 장기기증인을 위한 예우사업 전개와 전국 5만여 한국교회의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 동참을 통한 장기기증 홍보 및 교육 전개 등의 3대 비전을 선언했다.

이어 고분인 손인용 목사의 격려사와 본부 전 이사장인 김해철 목사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는 ‘한국 교회의 나눔과 장기기증’을 주제로 고신대 석좌교수인 손봉호 장로가 기초강연을 펼쳤다.

한편, 지난 1991년 설립된 본부는 26년의 해를 거듭하면서, 84만여 명의 장기기증등록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장기기증 단체로 성장했다.

특히 창립 26주년을 맞은 본부는 올해 사순절 기간에 출범하는 활성화위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에서 뜨거운 생명나눔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



구세군 레드실드 봉사단

1기 정기모임 및 봉사활동

구세군자선냄비본부(사무총장 신재국)는 최근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레드실드 봉사단 1기 정기모임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주최 조선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봉사단원 32명이 참석하여 구세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별토의를 통해 본격적인 봉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봉사단은 서울후생원 아이들과 등산, 시장나들이, 삼겹살파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교감

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구세군 관계자는 “화창한 4월 첫째 날,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작지만 웃음을 줄 수 있어 기쁘며, 이렇게 주말을 포기하고 뜻 깊은 행사에 동참해준 봉사단 여러 분들께 감사표현한다.”고 전했다.

2017년 창립된 레드실드 봉사단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치루 해외봉사활동, 감장나눔 활동, 자선냄비모금 활동 등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인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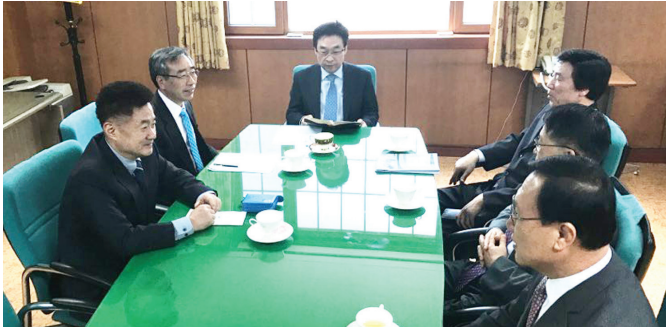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헌법에 의거 정책위원회에 추천 의뢰 결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찬 목사)는 지난 4월 4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66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김인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강태진 목사의 기도, 김인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끝으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정익섭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지난 3월 31일까지 임원 입후보자가 없음으로 헌법에 따라 정책



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기로 결의했다.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진이 추천되면 관련

서류를 정리 자격심사를 거쳐 임원진을 공포하게 된다.

신임 임원 선출...인내의 목회 다짐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4월 4일(화) 오전 11시, 순창순복음교회(담임 김종



호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지방회무처리 및 새 임원을 선출했다. 1부 예배는 김상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유관영 목사의 기도, 표재욱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표 목사는 담후 2:1-13 말씀을 본문으로

'사역자의 임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인내로 목회를 아름답게 해 나가야 함을 선포하였다. 김종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지방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신임 임원으로 회장 유관영 목사(순복음좋은나무교회),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 서기 이광호 목사(한리순복음교회), 회계 박종석 목사(벤엘전원교회)가 선출되었으며, 1년 동안 수고한 구임원들을 향해 격려의 박수가 있을 후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지방회를 마친 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유관영 목사는 회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심과 목욕교제를 헌신함으로써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다.

새 임원 선출 “지방회 발전 위해 합심으로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는 지난 4월 3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열고 회무처리 및 새 지방회 임원을 선출했다.

1부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한순남 목사의 기도, 김중성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정기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빌 2: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됨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서 김경옥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한명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



리하고 새 임원으로 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부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

산우리교회), 재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된교회), 회계 서미곤 목사(순복음열방교회)를 선출했다.

한명점 목사 이영순 사모 칠순 감사예배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는 지난 3월 31일(금) 오전 11시, 영도목장원 3층에서 한명점 목



사와 이영순 사모의 칠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의 인도 가운데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기도, 김태주 목사의 성경봉독, 시 73:23-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정기영 목사(세움교회)의 설교, 박종근 목사의 특송, 이종문 목사(글로벌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예배를 마친 후 지방회 임원들의 꽃다발 증정식을 갖고 한성우 전도사의 인사와 광고, 고영권 목사(한세교회)의 식기도 후 뷔페 식사를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새 임원 선출하고 지방회의 부흥 위해 기도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엄기설 목사)는 지난 4월 3일(월) 오전 11시, 금산순복음교회(담임 김병목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열고 지방회 회무처리 및 2017년도 새 임원을 선출하였다.

1부 예배는 이미순 목사의 사회로 석인권 목사의 대표기도, 이미순 목사의 성경봉독, 담후 2:20-2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엄기설 목사의 설교, 정운기 목사의 헌금기도와 축도 순으로 드러졌다.

이어 지난해 지방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한 지방회장 및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17년도 새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새 임원으로 회장에 엄기설 목사, 부회장 김병목 목사, 총무 석인권 목사, 서기 차재현 목사가 선출되었다.

지방회를 마친 후에는 금산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고 마이산으로 이동해 가벼운 산행을 하며 휴식에 도 지방회 각 교회들이 큰 부흥이 있기를 축원하고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다.



새 임원선출하고 지방회 사역에 총력 결의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홍영광 목사)는 지난 4월 4일(화) 송도순복음교회(담임 반인홍 목사)에서 66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였다.

1부 예배는 총무 송준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창모 목사의 기도와 서기 조성진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반인홍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반 목사는 요 16:19-24 말씀을 본문으로 '충만하면 내게 와서 말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였다. 이어 한인희 외 4명의 전도사 임명식이 있을 후, 회장 홍영광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모임에서는 2017년 새 임원 선출이 있었으며 이날 선출된 인천지방회 신임회장



으로는 인천국제순복음교회 이창모 목사가 추대되었다. 그 외 총무에 송준호 목사, 서기

에 조성진 목사, 회계에 이한숙 목사가 연임되었다.

세계선교연합회 인도, 미얀마 선교회 등 연합 기도회

현지 교회의 부흥과 '청년 IMCR대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기도

세계선교연합회 산하 인도, 미얀마, 나이지리아, 태국, 외국인 선교회의 연합기도회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은혜와진리교회 영동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열렸다.

선교위원장 권영호 장로의 사회로 김순회 안수경사의 기도, 영동성전 청년봉사선교회 회원들의 특송과 GNTC 선교성가단의 찬

양, 김수호 목사의 설교, 은혜와진리교회와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사역 및 세계선교 비전 실현을 위한 합심기도 순서로 이날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세계선교 적극화'를 교회 3대 목표의 하나로 삼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기도한 결실로 세계 도처에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선교지가 확장되어감에 하나님께 감

사드리고, 세계선교와 교회부흥을 위해 더 적극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현지 선교사와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회원들은 이와 함께 오는 8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개최 예정인 '청년 IMCR대회(세계선교와 교회부흥을 위한 세미나)'가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협력을 다짐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하였다.

바른 복음전파에 헌신할 새 임원진 선임

일산지방회

일산지방회(회장 박승호 목사)는 지난 4월 4일(화) 일산벤엘교회(담임 조영란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바른 믿음, 바른 복음전파의 기초위에 한 회기를 헌신하



며 섬길 새 임원진을 선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양호철 목사(빛과생명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재덕 목사(순복음넬치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박승호 목사(왕의문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왕상 18:16-21 말씀을 본문으

로 '왜 대답을 못 할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이냐 비알을 좇는 거짓 믿음이냐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오직 믿음으로 이 시대에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자'고 당부하며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 서영조 목사(서일산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2부 정기지방회가 개최되어 서기보고, 행사보고, 재무보고, 회계보고를 한 후 선거위원장 박용국 목사(장대교회)의 진행으로 신임원 선출에 들어갔다.

지방회장에는 박승호 목사, 부회장 이재덕 목사, 총무 재무 조영란 목사, 서기 회계 양호철 목사가 한 회기 동안 지방회를 섬길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오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지성 홍보대사, 팬들과 함께 라오스로

기아대책기구, 팬카페 ‘폴레폴레’ 회원 26명과 함께 봉사활동

이지성 홍보대사와 팬카페 ‘폴레폴레’ 회원들이 함께 라오스로 ‘서번트 투어’를 떠났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이지성 홍보대사와 팬카페 폴레폴레 회원 26명이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기아대책 사업장에서 4박 6일간의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4월 3일(월) 오후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지성 홍보대사는 <리딩으로 리드하라>, <꿈꾸는 다락방>, <생각하는 인문학>의 저자로, 2011년부터 기아대책과 인연을 맺고 홍보대사로 활동해 왔다. 이지성 홍보대사는 섬김을 강조하는 의미로 팬들과 함께 하는 해외 봉사활동을 ‘서번트 투어’라고 이름 지었다.

이지성 홍보대사는 팬카페 폴레폴레 회원들과 함께 기아대책 ‘드림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후원해 왔다. 기아대책은 이지성 홍보대사와 팬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잠바브웨, 캄보디아 등 18개의 학교와 비전센터를 건축했다.

이번 방문은 드림프로젝트 18호 학교인 후이이씨 초등학교 준공식을 기념해 이뤄졌다.

라오스 현지에서 이지성 홍보대사와 팬클럽 회원들은 벽화를 그리고, 책걸상 페인트칠을 하는 등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이지성 홍보대사는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함께 문화체험을 하는 등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

이지성 홍보대사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고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교육협력 협약

성결대, 실용 서비스산업 교육 협력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 총장: 윤동철)는 지난 3월 30일(목), 대학본부 재립관 8층 회의실에서 윤동철 총장과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김영배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뷰티, 드론, 태권도 등 실용 서비스산업 전반의 분야에 있어서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계약학과 및 산업체학과 설치와 운영, 교육훈련, 위탁교육 등의 인적 자원 교류 △공공사업 추진 및 운영, 학교기업개발 및 연구 △학생은행제 과정, 평생교육원 강좌 개발 등 교육과

정 개발 △외국인 학생 유치 활동 및 정보 교류 등의 세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양 기관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과 관련하여 드론 조정 및 운영, 정비, 설계, 콘텐츠 개발 등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드론 비행공학 과정’ 신규개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결대 윤동철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앞으로 성결대는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월드 미션 오브 코리아, 3월 정기 월례회 개최

세계선교의 비전 실현위해 기도, 동남학원 이사회도 함께 열어

월드 미션 오브 코리아(WMK 이하 월드 미션, 회장 오광근 목사, 총무 전순임 목사)의 3월 정기월례회가 지난 3월 30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소재한 동산교회(담임 박동순 목사)에서 개최되어 회무를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이사 회의를 열었다.

1부 예배는 조근일 목사(예수사랑교회)의 인도로 진인숙 목사(지구촌교회)의 대표기도, 정은혜 목사(성령교회)의 특송에 이어 사 1:18 말씀을 본문으로 박동순 목사(부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가 ‘진실한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최지혜 목사(영화교회)의 봉헌기도 후 참석자들은 △나라의 정치 안정과 5월 9일 성공적인 대선을 위해서 △월드 미션 오브 코리아를 위해서 △회원들의 기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광근 목사(새빛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총무 전순임 목사의 사회로 회원점명, 개회선언, 최송재 목사의 전 회의록 낭독 후 회계 최지혜 목사, 임양철장 김경수 목사, 총무 전순임 목사가 유인물대로 보고를 받았다.

광고 시간에는 서기 최송재 목사(새순교회)가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단기선교 기간에 거행되는 동남학원 소속 아나폴로 고등학교 교장 김

경문 목사)의 졸업식 소식을 전했고, 4월 정기월례회는 오는 4월 27일(목) 예수사랑교회(담임 조근일 목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동산교회(담임 박동순 목사) 4층 카페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남학원 이사회비납부 현황보고, 회계 보고, 임양철 보고를 받고 효율

적인 운영에 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 △지도위원 오광근 목사 △고문 이성하 목사, 김재우 목사 △회장 김해중 목사, 부회장 김승호 목사 △총무 전순임 목사 △서기 최송재 목사 △회계 최지혜 목사 △감사 이호성 목사, 정만수 장로.

(연락처: 총무 전순임 목사 010-2538-9026)



‘제2회 감사편지쓰기공모전’ 후원금 쾌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감사를 전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후원합니다”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계훈)은 지난 3월 31일(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에서 세대간소통 및 아동청소년 세대의 인식 함양을 위한 ‘제2회 감사편지쓰기공모전’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감사편지쓰기공모전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어린이가 행복하다’는 취지 아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사업으로, 5월 감사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내 삶의 스승’이라는 방향 아래 부모 및 보호자 세대까지 편지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스승세대와 소통하며 감사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공모전을 위해 1억원을 후원했다. 전달된 후원

금은 공모전 활성화를 위한 제작물 지원 및 수상자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전영태 기획부사장은 “공모전을 통해 전국의 학생들이 스승께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계훈 회장은 “이번 후원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4기 훌륭한 군사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청년 (19세 이상 - 30세 미만)
- 일시 : 5. 3(수) - 5. 6(토) 3박4일
- 장소 : 괴산순복음교회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송평길 105-7

- 회비 : 무료(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 문의 : 010-5145-3816 엔학고레 미니스트리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원하는 군사

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딤후2:3

월드비전, 아동 인성 교육 위한 ‘인성탐구생활 2017’ 실시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이 국내 아동 인성 교육을 위한 ‘인성탐구생활 2017’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4월 3일(월) 밝혔다.

국내 아동 권리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성탐구생활’은 인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지닌 세계 시민으로 성장

할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월드비전 ‘인성탐구생활’은 각 학급과 가정에서 체계적인 인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삼성의료원 사회건강정신연구소 및 (주)미래연과 협업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인성탐구생활 2017은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사회성과 시민의식을 교육하는데 있어 통합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재와 디지털콘텐츠(E-Learning)를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1, 2학년) 학생이며, 9월에는 유아(6-7)를 위한 교재도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 커리큘럼은 학년별 특성에 맞춰 다르게 구성됐다. 담당 교사와 학부모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홈페이지(www.school.or.kr/hope)를 통해 신청하면 디지털콘텐츠 및 교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림 그리기를 통한 인성 교육인 ‘제1회 마음이그리기대회’도 진행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자신의 마음과 친구를 이해하며 희망의 마음을 그리고, 이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영순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은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학교와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쉽게 접착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며 “월드비전 인성탐구생활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7개 교회 성도 593명 장기기증 서약

부활절을 기다리며 많은 성도들 생명나눔 동참 줄이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김현준 목사)는 지난 4월 2일 주일 전국 7개 교회에서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통해 성도 593명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서머나교회(담임목사 배제인)에서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본부 박진탁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주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가르침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자”며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이날 서머나교회 성가대원 전원을 비롯하여 성도 총 235명이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담임 배제인 목사는 “장기기증 서약을 더 빨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모든 교회가 이 귀한 서약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함양교회(담임 김현준 목사), 부산에 위치한 광안교회(담임목사 함영복), 울산에 위치한 큰빛교회(담임 임대진 목사), 전북 군산에 위치한 선한교회(담임 박진욱 목사),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흑표교회(담임 박재익 목사), 과천시제일교회(담임 이종덕 목사)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드려 이날 전국 7개의 교회에서 총 593명의 성도들이 생명나눔 약속에 동참했다.

본부 박진탁 목사는 “부활절을 전후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주어 감사하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 이탈주민 미혹하는 이단들, 물질로 출석 강요

북한이탈주민 국내에 3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꾸준히 늘어 국내에 3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선교단체 활동이 가장 활발한 종교가 기독교이고, 자연스럽게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이단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주며 북한이탈주민을 포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만민중앙교회를 출석한 A씨는 40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매달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하고, 김치, 쌀, 김 등 주식물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지원금이 없다고 말했다.

사람하는교회(구 큰민음교회)에 출석한 C씨는 출석 당시 13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었다며, 매월 교통비 10만 원, 구정과 추석에는 각각 20만 원씩 지원했다고 말했다.



탁지원
현대종교 발행인

하지만 토요일에 나와 성경공부를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모임을 만들고, 돈을 미끼로 이단교회 출석을 유도하고 있다. 정통교 이단에 대한 분별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이단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적 관점에서 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현대종교」 4월호에서 볼 수 있다.

- 기사제공 현대종교

CTS,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목회자 초청 시사회 성황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난 3월 23일(목) 왕십리CGV와 30일(목) 영등포CGV에서 목회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생을 담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자가에 못 박힌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지난 2004년 개봉한 영화로, 예수가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12시간을 주제로 한 영화다.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가 군중 속에서 언덕을 올라 심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그렸고, 영화 <엑소 고지>, <아포칼립토>, <브레이브 하트>를 연출한 벨 감슨 감독이 각본부터 연출 제작까지 맡았다.

영화를 수입한 우성엔터테인먼트 이장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패션오브크라이스트 영화의 재개봉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믿음과 용서 그리고 희생의 삶

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간절함에 영화를 수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사회에 참석한 조종환 목사(임마누엘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부활의 과정을 담은 영화가 재개봉되어 무척 반갑다”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려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CTS 정용혁 홍보팀장은 “앞으로도 CTS는 기독교문화의 대중화와 기독교문화 확산을 위해 영화,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오는 4월 13일(목) 더욱 선풍적인 화질의 HD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전국 CGV에서 재개봉된다.



영화 ‘십계:구원의 길’ 특별시사회 가져

한교연,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 상영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3월 27일(월)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 상영관에서 영화 ‘십계:구원의 길’ 특별시사회를 진행했다.

한교연 회원교단 총회장 총무 등 2백여 명이 관람석을 가득 채워 복도에까지 앉아야 할 정도로 성황을 이룬

이날 시사회는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의 사회로 영화 배급 홍보를 담당한 못생긴나무 대표 박성용 집사의 인사, 법인이사 황인찬목사의 기도로 진행됐다.

오는 4월 13일 부활절을 앞두고 전국 메가박스 상영관에서 일제히 개봉되는 ‘십계:구원의 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일생을 테마로 다룬 120분짜리 영화로 1966년에 제작돼 국내에서 상영된 바 있는 할리우드 영화가 아닌 2016년 브라질에서 새로 제작되었다.

당초 60부작 TV드라마로 제작돼 1년 6개월여 동안 방영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것을 일부 재촬영하고 편집해 웅장한 스케일의 영화로 재탄생되었다.

브라질에서는 작년에 ‘소파워즈’ 등 할리웃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치고 2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으며, 전 세계에서 1,400만 명이 영화를 관람하는 등 종교영화로서는 큰 흥행 기록을 세웠다.

한편 한교연 사회문화국은 지난해 분기별로 4차례 좋은 영화를 엄선해 시사회를 가진데 이어 올해도 성도들 신앙 함양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화를 골라 특별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6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 |
|---------------------------|---|
| 1. 총회일자 : 2017년 5월 15일(월) | 4. 사무총회 : 5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
| 2. 등 록 : 5월 15일(월) 오전 11시 |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
| 3. 개회예배 : 5월 15일(월) 오후 1시 |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교역자, 장로) |

2017년 4월 3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조 남 영

5월 14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7년 5월 14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 사 조 남 영
총 무 목 사 최 형택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email:aogk@aogk.org



天城으로 가는길

벤엘상조-후불기독교장례서비스

벤엘추모공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소전에서 발인까지 원스톱, 후불장례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임종)하는 날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닥치는 것이 장례입니다.

소천시 든든한 기독교 장례행사의 반력자-천성으로가는길 **벤엘상조**

벤엘추모공원 조감도 1544-0442 / 1811-1291



현재 건립중인 벤엘추모공원과 연계하여 벤엘상조를 발족하였습니다.

국내 기독교 전용장례 서비스로 전국 어디서나 장례행사를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갖추고 약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장례 지도사들을 구성하여 임종 후 부터 발인 때까지 한 가족처럼 경건함 속에 하나님결로 가시는 소천의 길에 최소비용으로 장례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벤엘추모공원으로 멤버십예약을 하실 때는 회원가로 할인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장례서비스의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벤엘상조”
190만원(하늘) 280만원(천성)

상담문의 1666-0991(영구구원)

* 배려·감사·감동·안식·치유는 벤엘상조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초대시

정문석 시인

예수의 얼굴

신이시여 신이시여
서른세 살 남자의 모습이
가시관을 쓰고도 아름다운
서른셋의 젊음이시네.
이승의 추위에
금동아줄을 달아 내리시는
서른셋의 성숙한
연민이시네.
바라보면 볼수록
땅위의 사나이들처럼
어머니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시네.
서른셋의 건강한
외로움이시네
서른셋의 깨끗한
사나이시네
서른셋의 고귀한
선한 목자시네
나의 하늘
신이시네.



정문석 시인 프로필

- 1988년 전남 강진 출생
- 강진농고,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 수학
- YMCA 주최 고등부 백일장 석류 시장원
- 고등학교 시절 시집『요람』, 『발간』
- 시집 『사랑하는 사람들』 발간

- 월간 『한국시』에서 무지개 농장 외 2편 당선
- 대한교과서(주) 위원
- 도서출판 한양 대표
- 가평순복음교회 집사

대학 캠퍼스에 퍼지는 이단 세력들 한번 잘못 빠지면 평생 후유증이 된다

최근 모 대학 신문에서는 “당신의 동아리 안전합니까?”라는 기사를 실었다. 특정 이단·사이비가 자기 대학 내에 파고들어, 대학이 골마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그 집투 사례를 보면, 첫째는 운동(탁구 배움 등) 동아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온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독교 동아리를 가정하여, 그 단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단 사이비를 포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동아리 전체를 정악하여, 운영권을 가지고, 기존의 기독교 동아리를 제명하는 식으로 기독교 동아리는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체육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 구성원(이단·사이비 신봉자들이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자기들의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학 본부 산하의 봉사팀에 들어와서, 다른 학생들을 포교하는 방법도 드러났다. 아니면, 아예 기독교 동아리에 침투해서 기독교 동아리의 회장이 되고, 그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단·사이비는 순수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도 침투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을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건전하고 건강해야 할, 학생들의 캠퍼스까지 온갖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이단·사이비가 이렇게 학교 동아리를 노릴 경



우,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자발적인 모임임으로, 기쁘고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될 뿐더러, 자칫하면 꿈과 비전을 품고 들어간 학교생활이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 당국과 미션스쿨의 교목실에서는 철저히 이단·사이비 동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션스쿨이 아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전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선량한 학생들이 이단·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잘못된 이단·사이비에 한번 빠지면, 마치 마약

과 같이, 평생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단·사이비의 특색은 기존 기독교와 종교를 부정하고, 특정 개인을 우상화/신격화하고, 새로운 성경공부가 있다고 유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우리 한국교회도 각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과 공동전선을 펼쳐, 대학 내 이단·사이비의 발호(跋扈)를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단·사이비의 특색과 문제점, 단체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아리 연합을 통해, 이단·사이비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한다.

사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킬 대통령을!

대선후보등록이 15, 16일 양일간 실시된다. 후보 등록이 되면 즉시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돌입, 5월 9일 투표일 전날 밤 12시까지 24일간의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우리 한국교회는 확고한 신의 질서의식에 입각하여 무신론과 유물 사관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는 것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신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를 수호할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아야 할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세상이 온통 5월 초에 치르는 대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일부 교계 지도자들도 바쁘게 뛰어 다니고 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약한 것을 약하다고 가르치는 것에 당당함을 가져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급격히 변하는 안보 위기 속에 한반도 안보체제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만약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해야 할 것이며, 실로 우리 교회로서는 지혜를 총 동원하여 올바른 대통령 뽑기에 성도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나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향유하도록 하며,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어야 한다.

지금 대통령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럴듯하게 말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구호에 못 세 상 사람들은 쉽게 현혹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사람답게’라는 말은 바로 신의 섭리

와 신의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대변하는 구호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현혹되고 있다는데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그레브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좌파 세력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탄압 사태에 대해 일인반구의 비판이나 규탄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남한의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북한 김정은에게 해가 되는 일만 쟁점으로 삼아 정부를 공격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 과거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교회재산 조사나, 교회 소득 조사나 하면서 마치 기독교 교회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반 기업 재산이나 소득과 같은 것처럼 조사하고 과세하여 결과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교묘히 탄압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한국 교회에 적용하여 보려고 하였던 일들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교회의 모든 경제 활동은 오로지 성도들의 정성으로 드러진 헌금을 선교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의 재산이나 소득은 일단 성도들이 세금을 국가에 바친 소득 가운데 봉헌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과세를 하면 그것은 이중 과세가 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종교탄압, 신앙 탄압행위가 되는 것이다.

전국의 성경중심 교회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 신정(神政) 시대와 같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찌하든지 이 불쌍한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 어주시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심사하는 피맺힌 기도인 것이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마다 바로 사무엘 선지가 블레셋 족속의 분탕질 하는 것을 막아 주심사 기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총 동원하였던 미스바의 그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사 86:6-7)하였다. 주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였 다.(사 38:5)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하나님의 계시(아포칼립시스)

주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전도대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항복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났 습니다’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마귀가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보다는 사역의 결과로서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기쁨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구원입니다. 주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포칼립시스(계시)가 열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어 주심이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았음에 복 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들이 누구인가를 계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기노스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율법의 관원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감춰져있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지만 의미는 모른 채 행위만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서 헤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하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같은 자들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 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개강 : 2017년 03월 02일 목요일)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 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흥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부활을 소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드리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 연합찬양대로 한 교회됨을 ●
- 성찬식으로 한 몸 됨을 ●
- 합심기도로 한 가족됨을 ●

강사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대표회장



김홍석 목사
(안양일심교회)

준비위원장



권성대 목사
(늘사랑교회)

2017년 4월 16일(주일) 새벽 5시 30분

안양 실내체육관



안양시기독교연합회

